

한전, 獨 기업에 독자개발 'AI 전력설비 예방진단' 기술이전

MR사와 SEDA 기술이전 계약
약 20억 기술이전료... 역대 최대
압도적 데이터 경쟁력 기반 성과

한국전력(한전)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설비 예방진단 기술을 해당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에 기술이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전은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글로벌 전력설비 분야 선도 기업인 MR사(Maschinenfabrik Reinhausen)와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MR사로부터 134만 달러(약 20억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게 된다. 이는 한전 단일 기술이전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성과는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근택 한국전력 송변전운영처장(왼쪽 두번째)과 윌프리드 브로이어 MR사 CEO(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양사간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이번에 이전되는 'SEDA(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 system)'는 IoT 센서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AI 기술을 활용해 변전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 판정·진단하는 한전의

독자 기술이다.

MR사는 이 기술을 자사의 예방진단솔루션 'TESSA'와 결합한 통합 플랫폼 'TESSA 2.0'을 구축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한전이 보유한 압도적인 데이터 경쟁력이 기반이 됐다. 다수의 예방진단 기업들이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달리, 한전은 약 200만 건의 개폐장치 운영 데이터와 3만 건 이상의 정제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SEDA를 개발해 기술 신뢰도를 높였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 이러한 대규모 실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력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9월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

후, 총 21회에 걸친 사업화 협의와 기술가치 평가를 거쳐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과 기술 최적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사의 상생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해 MR사가 생산하는 변압기 핵심 자재인 전압조정장치(OLTC)를 한전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화재 대응 기술과 친환경 기자재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국내외 사업 확대와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내 해운·항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PIER71 초청
해운항만 스타트업 지원행사 열어
싱가포르 시장진출·기술협력안 논의

부산항만공사(BPA)가 싱가포르의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해운·항만 분야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간 부산에서 '해운항만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에는 싱가포르의 해운항만 창업지원기관인 'PIER71' 관계자 등이 초청 받아 참석했다.

PIER71은 싱가포르 정부와 현지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항만 창업초기 기업 지원기관이다. 올해는 관계자들이 직접 부산을 찾아 부산지역 창업기업들과 만남을 가졌다.

행사 첫날에는 PIER71 관계자들이 BPA 본사를 방문해, 공사의 이른바 '보육기업'인 파이시시스템즈 및 아이피엘엠에스와 1:1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싱가포르 시장 진출 및 기술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들 보육기업이란 창업보육기관으로부터 사무공간,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 행사는 부산항만공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들의 지속적인 성



싱가포르 해운항만 창업지원 기관인 'PIER71' 관계자 등이 부산항만공사(BPA)의 항만안내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PA

장을 도모하고, 기술협력 및 교류를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번 만남은 부산항만공사의 해운물류분야 창업지원 플랫폼인 '1876 부산' 입주기업들과 함께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해운·물류 박람회(TOC ASIA 2025)에 참가했을 당시의 협력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공사의 항만안내선 '이그린호'에 탑승해 부산항 현장을 둘러봤다. 또 부산기술창업투자원·부산지역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각 기관에서 보육 중인 유망 기업들과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PIER71이 주관하는 '스마트 포트 챌린지(SPC) 설명회'가 열렸다. 이 설명회는 전 세계 해양 분야의 혁신과제를

창업초기 기업들의 기술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창업육성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설명회는 ▲PIER71 및 2026 SPC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수료 기업의 성과 창출 사례 공유 ▲질의응답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선정되는 국내 기업에는, 지원금과 함께 싱가포르 항만에서의 기술 실증 및 투자 연계 기회가 주어진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의 만남이 올해 부산에서의 실질적인 협업 기회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국제 협력망을 적극 활용하여 부산의 유망 창업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인천항만공사, 공공기관 안전관리 우수

4년 연속 2등급 기록

인천항만공사(IPA)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그간 건설현장·시설물 점검 고도화와 항만안전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IPA는 재정경제부가 이달 상순 발표한 '2025년도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비교대상 중)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에도 2등급을 기록했는데,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심사는 국내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사는 지난해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구성원의 뜻을 결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모빌리티장비를 활용한 건설현장 및 시설물 점검 고도화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전 대상 시설 B등급 이상 확보 ▲해양수산부 합동 항만안전강화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공사 사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에 따라 지난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밀폐공간 질식사고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무사고 달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4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은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공공기관의 선도적 모델로 정착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며 "인천항 전역에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유희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서산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체계적 구축

한국서부발전이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손잡고 유희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서산시, 서산 오토밸리·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등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공공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발전 수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나누는 공공-민간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과 참여기관들은 ▲공영주차장 등 부지 태양광 사업개발 계획 수립 ▲체계적인 운영 관리 ▲산업단지 내 시설·부지 활용 협의 ▲각종 인허



서산 오토밸리 전경

/서부발전

가 행정 지원 ▲입주기업 민원 조정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전과 서산시는 우선 산업단지 내 유희 공간인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치 부지와 설비 규모, 이의 공유 방안,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 세부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향후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할 공공주도 이익공유 사업 선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네덜란드, 식량안보·AI 전환 등 농업 협력

13년 만에 MOU 보완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식량안보·AI(인공지능) 전환 등 농업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기존의 양해각서(MOU)가 13년 만에 개정되면서, 향후 양국 간 농업부문 교역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한 중인 네덜란드의 실비오 에르켄스 농수산·식량안보·자연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농업 협력에 관한

MOU를 보강해 새로 체결했다. 13년 만의 MOU 보완이다. 양측은 또 서로의 농업혁신 추진 현황 및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스마트농업 및 AI 전환, 에너지 전환 등 분야별 정책 현황이 소개됐다. 또 농업여건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MOU가 체결됐다.

송 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네덜란드의 선진 농업기술과 경험을 적극 도입

하고, 이를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해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농업 협력이 한층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첨단 농업기술을 보유한 세계 농산물 수출 강국이다. 그간 양국은 농업 정책 공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 왔다. 이번 면담은 양국이 농업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세종=김연세 기자